

한국야구 기적같은 '베이징 금'...도쿄에도 태극기 꽃아라

파이팅 코리아! 잊지 못할 올림픽 명장면 베스트7

한국스포츠는 2020도쿄올림픽에 앞서 이미 숱한 영광의 역사를 만들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대회까지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총 90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스포츠동아가 창간한 2008년부터 범위를 좁혀도 무려 35개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13개, 2012런던올림픽에서 13개, 2016리우올림픽에서 9개다. 물론 메달의 색깔만으로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측정할 순 없다.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과 동메달, 메달리스트에 되지 않는 올림픽인도 무수히 많았다.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에 앞서 한국스포츠가 하계올림픽에 남긴 발자취를 조명해본다. 2008베이징올림픽부터 2016리우올림픽까지 3개 대회에서 태극전사들이 거둔 영광의 순간 7장면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한국야구 '베이징 신화'...사상 첫 올림픽 제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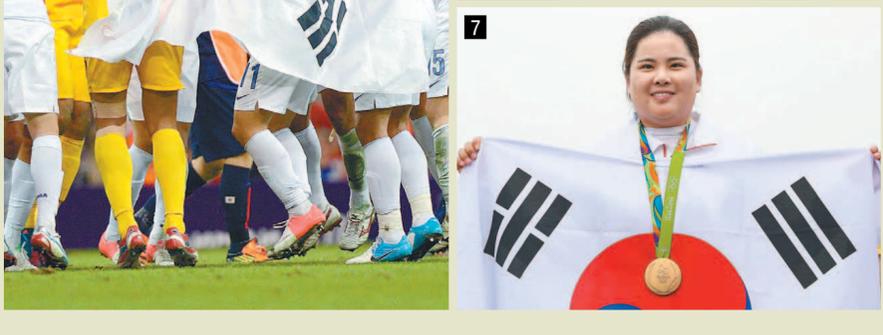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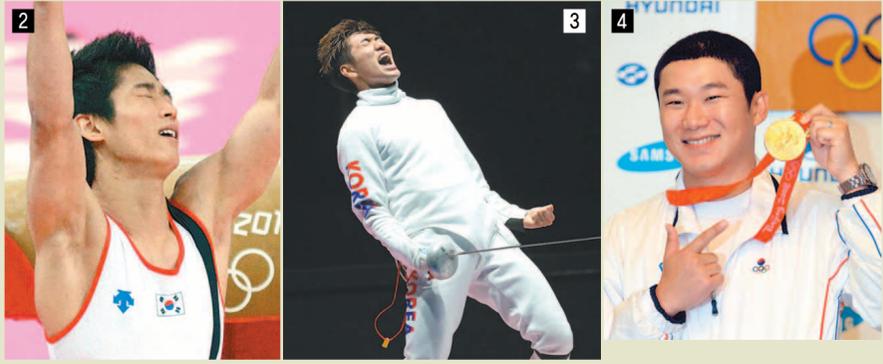
1 예선 라운드를 7전승, 1위로 통과한 한국은 준결승 예선 일본을 6-2, 결승에선 쿠바를 3-2로 꺾고 전승 우승 신화를 달성했다. 8월 22일 베이징 우쿠송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일본과 준결승,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쿠바와 결승 모두 극적이었다. 특히 준결승은 드라마였다. 일본에 0-2로 뒤지던 한국은 4, 7회 1점씩을 뽑아 동점에 성공했다. 운명의 8회말 1사 1루, 타석에는 이승엽. 이날 경기 전까지 23타수 3안타에 그쳤던 그는 이와세 히토키를 상대로 결승 우월 2점홈런을 그어냈다.

런던 '도마의 신' 양학선, 한국 기계체조 첫 금메달

2 8월 6일(한국시간) 런던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펼쳐진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선. 예선 2위(16.333점)로 결선에 올라 1차 시기에선 자신의 이름을 딴 7.4점짜리 초고난도 기술 '양학선'으로 16.466점을 얻었다. 착지가 다소 흔들렸다. 이어진 2차 시기, 7.0점짜리 '스카하라 트리플' 기술을 그림 같은 착지와 함께 완벽하게 성공시켜 16.600점을 따냈다. 1·2차 시기 평균 16.533점. 1960년 로마대회부터 올림픽무대에 섰던 한국 체조의 사상 첫 금메달이었다.

박상영 5연속 득점...리우 펜싱 에페의 대역전극

3 8월 10일(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전은 기적 그 자체였다. 세계랭킹 3위의 임재혁(형가리)은 역시 강했다. 10-14로 뒤진 가운데 남은 시간은 2분여, 상대가 1점만 더 보태면 메달의 색깔이 가려지는 상황이었다. 패색이 짙었지만 세계랭킹 21위의 21세 신예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짓말 같은 5연속 득점으로 15-14 역전승. 한국펜싱의 역대 올림픽 3번째 금메달이자, 에페 예선 첫 금메달이었다.



진중오, 베이징 사격 50m 금...올림픽 3연패의 시작

4 '슈팅 마스터'의 등장을 알린 서곡이었다. 런던과 리우에서도 이 종목 금메달을 따내 한국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올림픽 3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3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4개를 목에 걸었다. 8월 12일 베이징사격관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에서 총점 660.4점으로 북한 김정수(총점 660.2점)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감각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본선 6위로 결선에 올라 놀라운 집중력으로 마지막 10발의 총성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박태환, 베이징 자유형 400m 금...한국수영 첫 메달

5 '마린보이'의 탄생에 온 국민이 열광했다. 예선 통과조차 감지하지했던 한국수영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 획득, 그것도 시상대 맨 위였다. 남자 자유형 400m에서였다. 8월 10일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벌어진 결승에서 3분41초88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한국수영이 올림픽에 도전한지 44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당시로서는 올림픽신기록이기도 했다. 내친 김에 자유형 200m 은메달까지 따냈다. 4년 뒤 런던에서도 자유형 200m, 400m의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수영이 배출한 최고스타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런던의 신화...남자축구, 기적같은 동메달

6 유럽과 남미가 양분해온 세계축구. 올림픽 무대도 마찬가지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체계화한 연령별 세계대회의 가장 꼭짓점(23세 이하·U-23)에 있는 그 무대에서 한국이 마침내 기념비적 성과를 거뒀다. 조별리그 B조 2위(1승2무)로 8강에 오른 한국은 개최국이자 축구종가인 영국을 승부차기 끝에 따돌리고 4강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집트도 브라질에는 0-3으로 완패. 남은 경기는 동메달 결정전. 8월 11일(한국시간)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3·4위전 상대는 하필 일본이었다. 한국은 전반 37분 박주영의 선제골, 후반 11분 구자철의 추가골로 2-0 완승을 거두고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박인비 '리우 골프' 우승...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7 116년 만에 올림픽으로 돌아온 골프. 여자 개인전 예선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완성됐다. 8월 21일(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코스(파71·6245야드)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로 2위 리디아 고(뉴질랜드·11언더파 273타)를 5타차로 따돌렸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대 메이저대회 중 4개 대회를 석권하며 이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골프 여제'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목에 걸며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대업까지 일궜다.

100% 국내생산, 숨쉬는 천연소가죽, 발의 형태 교정, 인체기능향상, 아치보호, 충격완화, 악취제거
정장화, 운동화, 등산화, 골프화, 조깅화, 야외활동, 각종 스포츠까지



한 켤이면 충분하다

피로를 흡수하며 걸을수록 편해진다!!
몸을 바로 잡아주는 자세교정용 기능성 신발!!

기준가: 219,000원
파격가: 99,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남성용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여성용 사이즈: 230 / 235 / 240 / 245 / 250 / 255mm

다터플렌의 만능슈즈는 최상의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부드러우며 기능성을 부가하여 등산화 골프화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래 걸어도 발에 피로를 줄여주는 특수 고무 재질로 만들어졌다. 자세 교정과 탈취 효과 탁월하며 웰빙이 우수한 착화감은 처음 신는 신발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다. 교정발 정렬과 지지에 발 변형 예방과 무릎, 고관절과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며 발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을 감소하며 불안정한 걸음걸이 개선과 함께 발모양을 정상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혈액과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받은 용수철 지압봉에 오솔라이트 깔창을 내장하여 인체에 중요한 용천혈을 자극하여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냄새 제거 및 통풍이 잘 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며 뛰어난 중창을 내장하여 관절과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먼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만능 슈즈이다. 제품 색상은 남성용 검정, 브라운 / 여성용 검정, 와인인 있다.

천연소가죽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은 가죽의 표피만을 사용합니다. 표피를 벗겨낸 소가죽에 코팅을 하여 사용하는 가죽을 일명 코팅(액션)가죽이라 합니다. 이런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가죽의 통풍구를 막아 땀이 차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표인린 만능슈즈는 최상의 천연소가죽으로 가죽의 표피를 사용하여 통풍성과 신발의 부드러움이 액션 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진수테크쇼핑 검색](#)

인터넷 모바일 구입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 일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1566-1788**

MADE IN KOREA 오솔라이트 깔창내장! 가볍고 편한 300g 대의 AIR SHOES

100% 국내생산,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에어쿠션, 편안한 착화감



발이 시원한 '에어홀슈즈'

이여 붙이지 않은 한 장의 통가죽, 2744개의 에어 홀
오솔라이트 깔창 내장으로 발냄새 제거 (특히)

기준가: 198,000원
파격가: 79,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여름철이 되면 신발을 골라 신는것도 고민이 된다. 발에 땀이 많이 나고 악취도 심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신사가 출시되었다. 이여 붙이지 않은 한 장의 통소가죽으로 2744개의 에어홀을 뚫어 통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사이다. 충격 방지 에어쿠션을 장착하여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신사이다. 원터치 다이얼 방식으로 신고 벗기도 편하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사화로도 캐주얼화로도 적격이다. 초경량으로 무게의 부담이 없어 많이 걸거나 오래 서 있어도 발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 천연소가죽의 부드러움과 광택을 잘 살려 고급스러운 외형이다 소가죽의 신축성으로 발의 양축을 잘 감싸주고 바닥에서 느껴지는 쿠션감이 매우 좋다. 밀창 상하로 미끄럼방지 패드를 내장하여 빗길이나 물에 젖은 계단 등을 오를때 미끄러움을 현저히 감소시켜주어 안전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완벽하게 발에 땀이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발냄새 제거에 탁월하다. 이여 붙이지 않은 천연소가죽의 광택과 어우러진 에어홀이 신사의 품위를 더해준다.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100% 수(手) 작업 / 6개월 무상 A/S 보장!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